

## CBS스포츠 “이정후, 샌프란시스코와 9,000만 달러 계약할 것”

한국프로야구(KBO) 리그의 ‘슈퍼스타’ 이정후가 화려하게 메이저리그(MLB) 무대에 입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9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스포츠 전문 매체 ‘CBS스포츠’는 전날 올해 메이저리그 오프시즌과 관련해 10가지 예상을 하면서 이정후를 거론했다. ‘CBS스포츠’는 “샌프란시스코가 마침내 스타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키움 히어로즈 중견수 이정후”라고 밝혔다.



▲ 득점에 성공 후 환호하고 있는 이정후. 사진=뉴시스

이정후는 올 시즌 MVP로 선정됐다. 라면서 “또한 그는 재능이 있는 수비력을 갖췄다. 그동안 샌프란시스코는 스타 선수들과 계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정후는 그들이 딱 필요로 하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도 이정후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NBC스포츠 베이 에어리어’는 8일 “지난 여름 샌프란시스코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정후를 보기 위해 한국을 다녀왔다.”라고 밝혔다.

‘CBS스포츠’는 “지난 여름 발목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86경기에서 타율 .318, 출루율 .306, 장타율 .455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타율 .349, 출루율 .421, 장타율 .575에 홈런 23개를 쳤고 삼진(32개)의 2배가 넘는 볼넷(66개)을 얻

‘CBS스포츠’가 예상한 이정후의 계약 규모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CBS스포츠’는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와 6년 9,000만 달러에 계약할 것이고 4년 후 옵션 아웃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강인, 2주 연속 프랑스 리그 1라운드 베스트11 선정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라운드 베스트11에 2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리그 사무국은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11라운드 베스트11 명단을 발표했다. 이강인은 4-3-3 포메이션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등록됐다. 이강인은 올 시즌을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 지난 10라운드에 처음으로 베스트11에 포함됐다. 당시엔 미드필더에 자리했다.



▲ 상대팀 선수를 따돌리고 있는 이강인(왼쪽). 사진=AP/연합뉴스

이강인의 동료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정됐고, 모하메드 바요(릴)이 최전방 공격수로 뽑혔다. 파리 생제르맹에선 이강인과 음바페 외에도 워렌 자이르메리·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몽펠리에전 이후 “이강인은 작지만 어디서든 뛸 수 있다. 수비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고, 득점도 올릴 수 있다. 그는 완벽한 선수다.”라고 말했다.

비타냐가 미드필더, 아슈라프 하키미·노르디 무키엘레가 측면 수비에 등록됐다. 또한 마르키뉴스는 중앙 수비수로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은 지난 10라운드 브레스트전에서 파리 생제르맹 입단 후 첫 어시스트를 올렸고, 11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선 원발 슈팅으로 리그 호 골을 작성했다. 전반 10분 아슈라프 하키미가 크로스를 올렸고, 음바페가 뒤로 흘러주자 이강인이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 “류현진 원하는 MLB 팀 많다”



▲ 투구 중인 류현진. 사진=연합뉴스

“류현진을 원하는 메이저리그(MLB) 팀은 여전히 많다. 류현진이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

류현진의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는 9일 MLB 연례 단장 회의가 열린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18일 귀국하면서 ‘선수 생활 마지막을 한국 프로야구 한화에서 보내겠다’는 과거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라스가 그 ‘마지막’이 내년은 아니라고 확인시켜준 셈이다. 보라스는 “예년과 비교하면 올해 FA 시장에서는 투수에 대한 수요가 높다. 류현진처럼 검증된 선발 자원은 가치가 더욱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친정팀 LA 다저스를 비롯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탬파베이 레이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미네소타 트윈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류현진을 원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또한, 토론토가 선발 보강에 여의치 않으면 류현진에게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류현진은 올 시즌을 끝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계약을 마쳤다. 지난 시즌 부상해 1년 2개월여의 공백 기간을 가졌다. 시즌 중반 돌아와 토론토 선발 한 자리를 꿰찼다. 11경기에 등판해 3승 3패 평균 자책점 3.46을 마크했다.

#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즐겨보세요!!

생활,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칼럼, 여행, 요리, 부동산, 사진, 영화, 사고팔고, 구인구직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한인사회 소식, 지면보기(pdf신문보기)까지

〈타운뉴스 QR코드〉



townnewsusa.com

타운뉴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타운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왼쪽의 타운뉴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문 쉽고, 빠르게 타운뉴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온라인 홈페이지: townnewsusa.com